

서운영의 집과 사람



위험한 건축; 패스트 하우징

얼마 전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다. 갑자기 내린 눈에 건물이 무너져 신입생 수련회에 참석 중이던 부산 외국어대학 학생들이 사망한 것이다. 참변이 일어난 데는 갑작스런 폭설에 미쳐 대비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학관으로는 샌드위치 패널로 급히 지어진 건물을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식빵 사이에 헬프 치즈를 끼워 먹는 샌드위치가 바쁜 시간에 급히 한끼를 해결하는 수단이듯, 두 장의 철판 사이에 스치로풀이라는 단열재를 끼워 만든 샌드위치 패널 역시 빠른 시간 안에 급히 건물을 짓기 위한 자재로 쓰인다.

흔히 의식주라 일컫는 옷과 밥과 집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몇 년 전부터 패스트푸드의 위험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천인접을 가진 맥도널드 햄버거는 매장에 전문 요리사를 두지 않는다.

음식은 매장의 주방이 아닌 공장에서 반조리 상태로 가공되어 배달되며 때문에 매장에서는 굽고 데우는 등의 간단한 조리만 하면 되고, 그래서 고임금의 전문 요리사 대신 저임금의 시급(時給) 노동자만 있으면

된다.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던 포드 자동차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차안하여 음식 역시 조리가 아닌 조립의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패스트푸드의 특징이다.

빠른 시간 안에 저렴한 가격으로 한끼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강을 해치고 또한 살거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일회용품들은 환경을 악화시켜 정크푸드의 대명사라 불린다.

한편 옷에도 패스트캐션 있다. 예전에는 옷값이 비싸 한 벌을 장만하면 몇 년을 두고 아껴 입었다. 그런데 요즘은 자리, 유니클로 등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면서 옷값이 저렴해졌는데, 이러한 기업은 의류산업계의 맥도널드와 유사하다.

본사에서는 디자인만 담당하고 실제 제작은 제3세계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데, 박리다매를 위해 빠르게 변하는 유형을 따른다. 그래서 한 계절만 입고 버리는 옷 내지는 기분에 따라 서너 번만 입고 버리는 옷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의류구매도 활발하다. 사진에 나온 옷만 보고 주문했다가 제품을 받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이 귀찮아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이런 옷들은 천연소재가 아닌 값싼 합성섬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에도 좋지 않고 잘 찍지도 않아서 지구 환경을 크게 오염시킨다.

또한 패스트푸드와 패스트패션만큼이나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패스트하우징이다. 빠른 시간 안에 짓는 집이라는 의미의 패스트하우징은 철제 프레임에 내화 단열재를 사용하여 만든다. 주택의 80% 정도를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형식이다.

공장 생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공기 단축과 단가 절약을 위해 값싼 재료로 만들어진다는 데 문제이다. 사실 이러한 건물은 예전에도 있었다. 컨테이너 하우스라 하여 공사현장의 일시 숙소로 쓰이거나 대형 행사장이나 전시장 등 임시적인 용도로 일부 쓰이던 건물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패스트하우징을 아예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현재 주택 보급률 100%를 초과 달성을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일색의 획일적인 주거문

화에 염증을 느끼 마당이 팔린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을 꿈꾸기도 하고, 직장과 학교 때문에 도시를 떠나기 어려운 사람들은 대도시 인근에 소형 주말주택을 짓는 것을 희망하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집을 지으면 업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놓은 것을 구매하는 형식의 조립식 주택을 선호하기도 한다. 방, 주방, 욕실 등 미리 만들어진 모듈을 사다 놓고 블록을 조립하듯 현장에서 조립을 하거나 소형 주택인 경우에는 아래 통째로 만들어 트럭으로 운반하여 설치하기도 한다.

일견 쉽고 간단하게 작은 주택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패스트하우징이라는 또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다. 패스트푸드와 패스트패션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듯 패스트하우징 역시 위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위험성만이 제시될 뿐 패스트하우징에 대해서는 별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은 집값이 비싼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건축 칼럼니스트>

종교칼럼

춘래 불사춘(春來不似春)



일선
장흥 보림사 주지

햇차가 그리워 차밭에 오르니 볼을 스치는 바람이 아직 차갑습니다. 그동안 기습을 부리던 끝살 주위는 물러나고 마침내 산하 대지엔 봄비가 흠뻑 내리고 있습니다.

입춘이 지난지 벌써 한 달이 되었지만 온

산 가득 꽃이 피고 새들의 목청에 융기가 흐르는 온전한 봄은 아직 멀었습니다. 저마다 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꽃다발을 안겨 축하해주는 싱그러운 봄의 풍광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절 앞을 흐르는 냇가에 나갔다더니 어느덧 부풀어 오른 버들개지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동안 꽂았던 추위에 움츠렸던 몸을 펼치고 일어나 산창(山窓)을 열어젖히고 겨우내 쌓였던 먼지와 망념(妄念)들을 털어냅니다. 책꽂이에 쌓여 있는 먼지부터 펼어내고 차례로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들을 밖으로 내어 헛볕을 쪄고 방구석마다 오래 묵은 먼지들을 털어냅니다.

마침내 미세 망면까지 털어내니 방안과 바깥이 하나로 통하여 삼쾌한 봄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차밭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험난한 날씨를 헤쳐나온 봄입니다.

보조국사는 '수심결'에서 얼음 뜻이 물인 줄 확실하게 깨달았지만 아직 완전히 녹지 못하여 일상사에서 마대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헛빛의 공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행자가 일상사의 보고 듣고 말하고 가고 오는 그대로가 진리인 줄

깨달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거친 습기와 엄력(業力)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입춘이 진즉 지났지만 아직 산하에는 찬바람이 물러나지 않는 것처럼 '이치는 문득 깨달았지만 현실은 아직 자유롭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마치 얼을 뜯어 바로 물인 줄 깨달았지만 일상에 필요한 목욕하고 세면하며 설거지하는 데는 아직 마을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SNS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신통한 일이 끊없이 일어나고, 대기업에서는 돈이 쌓여 있지만 쓰고 끊어지지 않고 합니다. 하지만 세 모녀의 사살사건에서 보듯이 인간의 기본 인권이 무시되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은 아직

보조국사는 '수심결'에서 얼음 뜻이 물인 줄 확실하게 깨달았지만 아직 완전히 녹지 못하여 일상사에서 마대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헛빛의 공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행자가 일상사의 보고 듣고 말하고 가고 오는 그대로가 진리인 줄

한편,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갖 수모

와 도전을 이기고 마침내 성공을 했지만 수성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깨닫고 나서도 지키기는 더욱 어려우니 방심하지 말고 비로소 참다운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성공의 기분에 취해서 고생했던 지난 시절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성공의 즐거움에 빠져서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깨달은 사람도 아직 힘이 약하여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지만 보는 대상에 팔리고, 귀로 쏘리를 듣고 소리에 따라가고, 코로 냄새를 맡으며 냄새를 따라서 분별을 일으켜 진즉 보고 듣고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자의 자성을 순간 잊어버리고 예전의 버릇이 여전하여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춘래불사춘'이란 말처럼 자기의 '참성품'을 망각해버리고 바깥 대상에 따라서 울고 웃으며 사는 것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참다운 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고

돈이 나오는 나무, 고로쇠



권창환
영암국유림관리소장

무에서 수액을 받아 마셨더니 무릎이 퍼졌다. 또한 지리산 지역에 구전(口傳)되고 있는 속설에 의하면 '변강쇠'가 고로쇠 수액을 장기 복용하여 남성으로서 최고의 체력(?)을 갖추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빠른 이로운 물이라는 뜻으로 골리수(骨利水)란 이름이 붙었고 그 말이 변해서 고로쇠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은 바로 인체의 근원이다. 그래서 독일의 문화학 헤르만 헨리는 그의 저서 '싯다르타'에서 '물에서 배우라, 물에는 혁재만 존재한다. 과거라는 그림자도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 물은 생명의 소리요 영원을 생성하는 소리다'며 물의 철학을 이야기했다.

고로쇠 수액에는 각종 미네랄,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소화기계통과 관절계통의 질환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대 미네랄이라 칼슘은 Ca, K, Mg, Na이 전체 무기성분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당(Sucrose)성분이 16.4g/l 정도 포함되어 있어 약간 단맛이

난다. 이런 고로쇠 수액은 깊은 산중에서 나무에 의해 걸려지기 때문에 순수 무공해 음료이다. 또한 인체를 구소하고 있는 수분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보다 빨리 흡수되어 속취해소 및 스포츠 이온 음료를 대체하는 생체수(Bio-water)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산에서 나무를 키워 벌채할 경우 손의 계산을 해보면 1본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60년 후에 베어 팔았을 때 겨우 10만원이 될까 말까 한다. 그만한 나무를 키우 벌채해 수익을 얻는 임업경영은 장벌기(長伐期)

에 공익성이 강하며 단기적인 수익성을 바라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고로쇠나무는 나무를 베지 않고도 매년 1그루에서 5만원 이상 돈이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나무인가? 그야말로 신이 내려 주신 커다란 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채취시기만 지나면 수액도 나오지 않고 자동으로 상처부위에 응합이 되어 치유가 된다. 실로 '돈이 나오는 나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돈이 나오는 나무인 고로쇠는 주

민 스스로 과다 채취를 금지하고 제취규정을 스스로 준수해야 한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우화에서 보는 것 같이 조금 더 채취하려는 욕심에 채취 구멍을 많이 뚫고 과잉채취를 하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 오히려 생산량은 줄어들게 된다. 고로쇠 생

산량은 구멍을 많이 뚫는다고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무 경계에 맞게 천공을 하고 채취를 해야 오히려 나무가 해가 없고 생산량도 많다는 사실이 국립산림과학원의 실험 결과에서 검증되고 있다.

또한 채취주민들은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귀중한 산림자원이 산불로 소실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산불로부터 보호만 한다면 특별한 노력 없이도 나무가 생장하고 생장량만큼 수액생산량이 증가하는 재생가능 자원이다. 아울러 산림내 쓰레기를 수거하고 산에 설치된 빛, 옮무 등 불법도구들도 수거하여 악생동물을 보호하는 등 산림생태계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소득도 증대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 아는 물부족 국가인데 이렇게 헤프니 물을 소비해도 좋은지 안타까웠다. 따져보면 그 아주머니만 나루랄 게 아닌 것 같다. 물을 아끼고 입으로는 외치지만 우리들 의식 속에는 은연중에 수돗물 정도는 허드렛물로 여기고 있다. 집이나 업소에서 식수로는 전부다 싱수를 먹고,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가정은 열 중에 한 가구도 안된다고 한다.

수돗물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 문제는 불신을 받는 수돗물을 어떻게 하면 안심하

고 먹을 수 있는 물로써 아끼도록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나라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계속 불신을 받는다면 물낭비는 더 심해질 것이므로 그런 일을 막을 약속을 짜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제 본격적인 갈수기로 접어들고 있다. 아마도 5월말까지는 가뭄이 계속될 것이다. 전국의 논과 밭이 찍찍 갈라지는 것을 보고서 정신 차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물을 아끼는 마음가짐을 갖자.

▲남보라·광양시 도이동

수돗물, 허드렛물로 여기는 태도 문제 많다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마친 후 회식을 위해 근처 식당에 갔는데 주방 아줌마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아주머니는 수돗꼭지를 틀어 놓고 있었는데 그릇을 씻거나 행구지 않는 상태에서 손을 물에 잠그지 않은 채 허리에 걸친다.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대로 틀어놓아 수도

꼭지에서는 물이 캄캄 쏟아졌다. 물을 아끼려는 마음은 애당초 없는 듯했다. 수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커다란 통에서 넘쳐 주방 안으로 흘러지면서 그대로 하수구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한동안 바라보노라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방의 저 아주머니는 자기네 식당이 아닌 종업원이어서 물 아까운 줄 모르는 걸까.

社說

'현대판 노예' 양산 직업소개소부터 손봐라

불·탈법을 일삼는 직업소개소가 염전의 '현대판 노예'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지만 당국의 감독은 허내 내기에만 그쳐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

최근 전남지방경찰청은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서 임금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중 상당수가 직업소개소의 감안이설에 속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과정에서 알선업체의 다양한 비리 행위도 적발됐다.

이처럼 직업소개소의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소 실태 점검을 걸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소개소는 종사자와 사무실 20평이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는 직원 현황 등만을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치고 일부에서는 분기별 정기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니 염전이나 어업현장에서 근

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주들이 비정상적인 직업소개소를 통해 선원을 채용하고 이 과정에서 불·탈법이 자행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관련 규정이 비현실적인 것이다.

현행 선원법상에는 '20t 이상 어선이나 5t 이상의 상선'에 대해서만 해양항만청이나 선원고용센터를 거쳐 인력 수급이 가능토록 돼 있다. 결국 조건에 맞지 않은 새우·멸치잡이 등 영세 연근해 어선들은 인력 요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직업소개소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자자체와 경찰은 우선 직업소개소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무허가 업체를 걸러내야 한다. 허가업소라도 위법 사항을 밝혀내 엄하게 제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당 법규를 현실적으로 고치는 일 또한 시급하다. 당국은 지역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현대판 노예'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 가족의 비극, 지원책 절실히

19만여 명에 이른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70여만 명이 발달장애인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부양은 대부분 부모이고, 1년 평균 1933만 원을 발달장애인 자녀를 위해 쓰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장애인단체들이 발달장애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기금 조성과 지원센터 설립, 지원팀 구상 등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난 2007년 4월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이 추진됐고, 2012년 5월 국회 의원 13명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다른 중증장애인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의 조작 안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와 국회는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제정하고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이를 공약한 만큼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발달장애 가족의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